

TALK 국민 메신저에서 종합 플랫폼으로

카카오톡 10주년... SNS·게임·음악·쇼핑·은행·택시까지 "카톡해~!"

"카톡해~!"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은 일상이 됐다. 전국 어디서나 '카톡하다'라는 표현이 쓰인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송이 안 될 때면 순식간에 카카오톡이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다.

2010년 3월 18일 출시된 카카오톡이 이 달 출시 10주년을 맞는다.

(주)카카오가 최근 발표한 2020년 2월자 기업설명회 동 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이용시간 기준 메신저 시장 점유율 96%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국내 월간 활성이용자(MAU)는 4485만 9000여명이며, 하루 평균 110억건의 메시지가 오간다.

카카오톡이 '국민 메신저'로 자리잡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던 2010년 당시 카카오톡은 문자메시지(SMS), 멀티미디어 메시지(MMS)의 대체제로 급부상했다.

출시한 지 하루 만에 앱스토어 다운로드 순위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 가입자 100만명을 넘어섰다. 출시 1년만에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했으며, 그이듬해인 2012년 3월에는 가입자가 네 배로 뛰어 4000만 명에 이르렀다. 성장 속도는 더 빨라져 출시 3년차인 2013년

메신저 시장점유율 96% 월간 이용자 4485만 9000여명 메시지 하루 평균 110억건

에는 가입자 1억명을 달성했다.

높은 관심을 끌어 모은 배경에는 '무료'라는 장점이 있었다. 기존의 SMS는 40자(80바이트) 내로 글자 수가 제한됐으며 건당 20~30원의 이용료도 부과됐다. 긴 글이나 사진 등을 첨부한 멀티미디어 메시지(MMS)는 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했다. 반면 카카오톡은 와이파이(Wi-Fi)나 데이터 패킷망을 이용해 요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적절한 '타이밍'도 초기 이용자를 확보하는 데 한 몫 했다. 카카오톡은 2009년 아이폰, 삼성 갤럭시 시리즈 등이 우리나라에 소개되며 피쳐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세대 교체'가 일어나던 때 출시됐다.

당시 사용 가능한 앱, 소프트웨어가 많지 않았던 것도 플러스 요소였다. 경쟁 상대인 네이버 '라인'은 2011년 6월이 돼야 출시돼 이미 시장을 장악한 카카오톡을 넘

수 없었다.

카카오톡의 성공에 힘입어 (주)카카오도 급성장했다. 2014년 다우과 합병을 진행, 다음카카오 통합법인을 출범했다. 네비게이션 앱 '김기사'를 인수해 자회사 (주)카카오모빌리티를 열고,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해 음원 서비스 '멜론' 운영권도 잡았다. 사업 범위를 차츰 넓혀 간 카카오는 현재 SNS, 게임, 음악, 쇼핑, 은행, 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 플랫폼으로 거듭났다.

카카오톡은 이제 '해의 이용자 공략'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이용자를 제외한 월별 활성이용자는 663만6000여명에 불과하다.

해외 시장은 기존 메신저 앱이 장악하고 있는 만큼 진출이 더욱 어려운 전망이다. 2019년 월별 활성이용자수 5억명을 넘긴 '왓츠앱'을 비롯해 일본에서 활발히 쓰이는 네이버 '라인', 중국에서 쓰이는 텐센트 '위챗' 등이 경쟁 상대다.

한편 카카오는 카카오톡 1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 것을 검토했으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사를 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조선대, 새 '큐브위성' 개발 착수

오현웅 교수팀, '기술검증형' 분야서 최종 선정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에 실려 발사 예정

조선대학교가 지난 2017년에 이어 새로운 '큐브위성' (초소형 인공위성) 개발을 시작했다.

조선대 오현웅 교수팀(스마트이동체 융합시스템공학부)이 최근 '2019년 큐브위성경연대회'에서 '기술검증형' 목적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 지역대학 중 유일한 개발팀으로, 위성은 최초의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오 교수팀은 솔탐, 한화시스템 등 국내 8개 업체와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개발팀이다. 이들은 지난 2017년 호남권 최초로 1kg 큐브위성 'STEP Cube Lab'을 개발해 지난 2018년 1월 인도에서 발사시켰다. 이 위성은 분리 궤도 진입 및 지상국으로부터 위성 신호수신에 성공했다.

오 교수팀이 이번에 개발할 큐브위성은 6U (1U=10cm×10cm×10cm)급으로, 무게는 10kg 정도다. 명칭은 지난 2017년 개발한 'STEP Cube Lab'에 이은 'STEP Cube Lab-II'로 정해졌다.

이 위성은 백두산 천지 폭발 징후를 관측하는 것이 주 임무다. 또 산불 피해 지



오현웅 교수

역, 도심 열섬현상 등도 관측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항공우주연구원(국립 우주연구원)이 주관하며, 국내 대학(원) 우주분야 우수 인재 양성과 위성 산업 저변을 확대하고자 열렸다.

대회에서는 1·2차 평가를 거쳐 4개 팀(과학임무형 3팀, 기술검증형 1팀)이 최종 선발됐다. '과학임무형' 분야에서는 연세대학교팀, 한국과학기술원(KAIST)팀, 서울대학교팀이 선정됐으며, 오 교수팀은 '기술검증형' 팀으로 선발됐다.

오 교수팀은 과거로부터 7억원을 지원받는다. 개발된 큐브위성은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향할 예정이다. 오 교수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우리 대학 학생과 기업이 향후 우리나라 우주개발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빅뱅 이후 우주에서 가장 큰 폭발 확인

3억9천만 광년 떨어진 뱀주인자리 초대질량블랙홀 주변서 포착

빅뱅 이후 우주에서 관측된 것 중 가장 규모가 큰 폭발이 확인됐다.

이 폭발의 흔적은 지구에서 약 3억9000만광년 떨어진 뱀주인자리 은하단의 중심에 있는 한 대형 은하의 초대질량블랙홀(SMBH) 주변에서 포착됐다.

미국 해군연구소의 천문학자 시모나 지아친투치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이 초대질량블랙홀이 물질을 분출하며 주변을 감싸고 있는 초고온 가스(플라스마)에 공동(空腔)을 만들어낸 것을 확인하고 관련 논문을 '천체물리학저널'(The Astrophysical Journal) 최신호를 통해 발표했다.

블랙홀은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게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물질과 에너지를 분출하며 폭발해 우주공간에 충격을 가하는 일도 종종 있다.

그러나 이번 폭발은 태양이 평생 내뿜는 에너지의 약 1000억배에 달하는 양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엄청난 규모로, 지금까지 알려졌던 우주 최대의 폭발인 MS 0735+74 때보다 5배나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천개의 은하가 모여있는 뱀주인자리 은하단의 플라스마에 만들어진 공동은 사실 지난 2016년에 X선 망원경을 통해 처음 관측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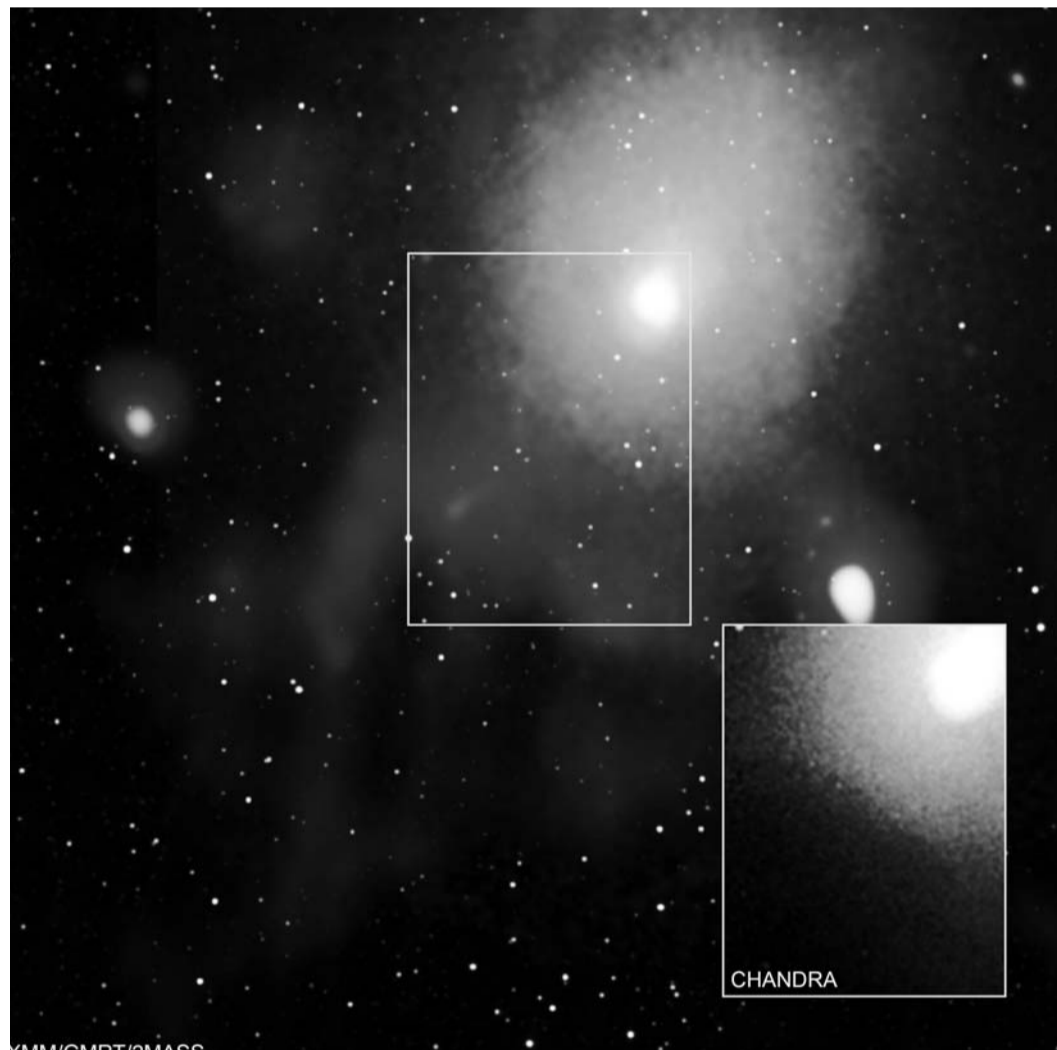
당시 은하단의 X선 이미지에서 이상하게 굵은 가장자리가 포착돼 학계에 보고됐지만, 중심 은하에서 약 40만 광년이나 떨어진 곳에 있고 공동이 약 150만 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어 초대질량블랙홀이 물질을 분출하며 만들어낸 벽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정도 공동을 만들어내려면 통상적인 분출의 수백에서 수천 배에 달하는 초대형 분출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는 것이다.

지아친투치 박사 연구팀은 그러나 X선 우주망원경인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찬드라와 유럽우주국(ESA)의 XMM-뉴턴의 관측 자료에 더해 저주파 전파망원경인 머치슨 광시야 배열(MWA)과 자이언트 미터파 전파 망원경(GMRT) 자료를 분석해 굵은 가장자리가 공동의 벽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 굵은 가장자리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된 전자에서 나오는 전파로 채워진 지역과 맞닿아 있는 것을 찾아냈는데, 이런 빛에 가까운 가속은 초대질량블랙홀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이 전자들이 적어도 2억4000만년 전에 이뤄진 강력한 폭발로 가속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뱀주인자리 은하단 중심의 블랙홀은 현재는 물질을 분출하지는 않고 있다.

/연합뉴스



뱀주인자리 은하단 내 한 초대질량블랙홀 주변에서 포착된 대폭발 흔적. 초대형 분출을 통해 만들어진 거대한 빈 공간이 있다.

코로나19 사태 위기를 기회로 IT업계들, 재택근무 무상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한 기업·기관이 늘면서 이들을 위한 관련 솔루션을 무상 지원하는 IT업계가 늘고 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협업 솔루션 '팀즈'를 중소기업에 1년간 무료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팀즈는 메신저·화상 및 음성 회의·문서공유 등 기능을 갖추고 있다. 교육기관에도 무료 제공된다.

한국MS는 3월 한 달 동안 팀즈로 원격수업이나 원격근무를 진행하는 기업·기관을 위해 팀즈 사용법을 상담할 수 있는 비상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스트소프트도 자사 클라우드 협업 플랫폼 '팀업'의 프리미엄 버전을 6개월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의 위기 경보 단계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신규 가입자 수가 33.3% 증가하는 등 기업들의 협업 솔루션 문의가 급증한 상태"라고 전했다.

웍스모바일과 NHN도 각각 자사 원격근무 솔루션 '라인웍스'와 '토스트 워크플레이스 두레이'를 당분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네이버는 동영상에 인공지능(AI) 음성 인식을 수 있는 '클로버터빙'을 5월까지 기업·기관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